

고대 이스라엘의 레위인은 누구였는가?*

우택주(한국침례신학대학교)

1. 들어가기

이 연구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레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기원과 정체를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약성서의 레위인 묘사는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다. “레위인은 야곱이 레아와 낳은 아들 레위(창 29:34)에게서 유래한 레위 지파 사람들을 가리킨다. ... 그들은 다른 지파와 달리 상속받은 땅 없이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살았다. 땅이 없는 것은 야곱의 저주(창 49:7)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제사장 직무를 맡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예, 민 18:23; 신 10:9). 레위인의 종교적 역할에 관하여 구약성서는 상이한 두 가지 역할 즉 제사장과 제사 보조원으로 묘사한다.”¹ 이 외에 신명기는 “레위 사람 제사장”(신 17:9, 18; 18:1; 21:5;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A2A01062121).

1 Jaeyoung Jeon, “Levites”, *Encyclopedia of the Bible and Its Reception*, Vol. 16 (Berlin/Boston:

31:9(레위 자손 제사장))과 “성 중에 거하는 레위인”을 구분하며 후자를 고아, 과부, 객과 함께 사회적 구제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한편(신 14:29; 16:11, 14; 16:11-13) 민수기와 여호수아서는 48개 성읍을 거주할 곳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 목초지에 그들의 가축을 둘 수 있도록 조치한다(민 35장; 수 21장). 또 에스겔서는 레위인을 사독 제사장과 구분하여 제사직무에서 배제하고 성막 봉사자로 전락하는 이유를 언급한다(겔 43:10-15). 이런 위상 강등은 민수기와 같은 오경의 제사장 문헌(P)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제2 성전 시대 문헌인 역대기,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에서는 이들의 역할과 기여에 우호적이다.²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레위인의 위상과 역할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변화를 거듭했으며 그들에 대한 이해는 대체로 본문의 작성 시기에 관한 논의와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레위인의 기원에 관한 그것은 “역사적으로 불확실한 상태로 감추어져 있고 명확하게 밝혀진 적이 없다.”³ 벨하우젠(J. Wellhausen) 이후 레위인 연구는 끊임없이 이루어졌으나 그들의 기원은 여전히 확실치 않다.⁴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가 던지는 질문은 이렇다. 자유롭게 이주하며(신 18:6; 사 17:8) 특정한 거점 없이 온 땅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단일한 혈연집단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희박한 레위인들을 언제 어떻게 하나의 지파로 부르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적 업무를 수행하는 집단으로 공식적으로 인식하

Walter de Gruyter, 2018), 336-337.

- 2 민경진, “제사장 문서들 안의 레위인”, 『부산장신논총』 4집 (2004), 1-26; “역대기와 레위인”, 『부산장신논총』 5집 (2005), 1-16; “에스라-느헤미야서 안의 레위인”, 『구약논단』 26집 (2007), 112-128; 배희숙, “역대기에 나타난 레위인의 기능 및 그 의미”, 『장신논단』 45권 4호 (2013), 67-89.
- 3 R. E. Clements, “Deuteronomy”,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II (Nashville: Abingdon, 1998), 427.
- 4 J. Wellhausen,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Israel: with a Reprint of the Article Israel from the Encyclopaedia Britannica* (New York: Meridian Books, 1961), 121-151.

기 시작했을까?

이에 대답하기 위해 먼저 레위인의 기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려고 한다. 첫 번째, 이 작업은 레위인의 기원을 논할 때 레위 지파에 관한 논의가 부족했음을 알려 줄 것이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 역사초기부터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제의기능인으로 존재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세 번째는 이들을 하나의 독립된 지파로 부르게 된 역사적 시기를 논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신명기의 레위인 제사장과 구제 대상이 된 레위인 묘사를 이해하는 방안과 아울러 구약성서의 다른 레위인 단락들(창 29:31-31:24; 출 32:26-29; 신명기의 레위인 관련 표현들; 사 17장; 겔 44장)을 설명하려고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벨하우젠은 이스라엘 역사 초기부터 누구든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요시아 개혁으로 인해 폐지된 지방 성소의 제사장을 레위인으로 부르게 되었으며 포로기 에스겔서가 이런 구분법에 정당성을 부여했고 제사장 문헌인 민수기 18장 23절은 이를 “영원한 율례”로 확정했다고 본다.⁵ 그는 레위인의 기원을 특정한 역사적 상황으로부터 파생된 제사장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간주한다. 따라서 레위인을 기능인이나 종족 명칭보다는 일종의 사회적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한 것 같다. 그에 따르면 레위인은 처음부터 제사장 직무를 전담하는 지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고 포로기 에스겔과 그 이후에 작성된 제사장 문헌인 민수기(1:47, 49; 3:6; 17:3; 18:2)에서 이와 같은 인식 전환을 확인한 것으로

5 Ibid., 147.

이해했다.⁶ 요시야 개혁이라는 역사적 시점을 레위인 명칭의 등장 시점으로 보는 그의 견해는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어 보는 탁월한 해석이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초기부터 항상 존재했던 제사장 집단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아론 지파도 사독 지파도 아닌 레위(!) 지파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는 해명이 필요하다.

군네벡(A. H. J. Gunneweg)은 요시야 시대에 집중한 벨하우젠과 달리 이스라엘 역사 초기를 묘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사사기 본문 논의로 시작한다. 그는 사사기 17장의 “레위인”이 지파 명칭인지 직업 명칭인지를 묻고 본문 읽기를 통해 후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⁷ 그들은 특정 지파와 땅에 소속되지 않은 채 흩어져 살던 (제사하는?) 기능인이었는데 요시야 개혁이 처음으로 이들을 “레위 사람 제사장”으로 부름(levitizierung)으로써 제도화했다고 주장한다.⁸ 그는 또 레위인과 레위 지파의 명칭이 같은 것은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⁹ 세속 지파였던 사람들이 제사장 지파로 등장하게 된 사건을 요시야 개혁에서 발견하였다는 측면에서 벨하우젠과 같은 생각이다. 아바(R. Abba)와 코디(A. Cody)도 군네벡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제사장 직분이 원래는 레위인에게 국한되지 않았고 레위인 고유의 직무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주전 7세기 말 신명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¹⁰ 코디는 신명기가 모든 레위인이 전부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사장은 오직 레위인만 가능하

6 Ibid., 145-146.

7 A. H. J. Gunneweg, *Leviten und Priest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5), 15-17.

8 Ibid., 134.

9 Ibid., 53.

10 R. Abba, “Priester and Levites”,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3 (Nashville: Abingdon, 1962), 881; A. Cody, *A History of Old Testament Priesthood*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69), 60.

게 만들었다고 본다.¹¹ 렘(M. D. Rehm)도 군네벡처럼 레위인이 종족명인지 기능명칭인지를 물으면서 “(야훼에게) 빛진 사람, 또는 서원한 사람”이라는 알브라이트의 어원(lawiyu) 설명을 수용하여 처음부터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한다.¹² 그는 초창기 이스라엘 사회에도 제사를 집행하던 제사장이 있었고 그들이 바로 레위인이었다고 주장한다.¹³

크로스(F. M. Cross)는 제사장 직제가 초기 이스라엘에는 확립되지 않았으며 군주 시대부터 단과 실로의 무스계 제사장 가문과 헤브론과 벤텔의 아론계 제사장 가문이 서로 경쟁하였다고 관찰하고 다윗이 무스계 아비아달과 아론계 사독, 두 명의 제사장을 임명한 것은 제사장 가문 사이의 갈등을 통합하려는 시도였다고 해석한다.¹⁴ 그에 따르면 역대기의 족보에서 아론계 제사장이 주도권을 쥔 모습은 포로 후기에 사독계 제사장 가문이 승리한 증거로 이해한다. 하지만 그는 사독의 기원을 신생 혈통, 기브온, 기랏여아림, 여부스 출신으로 보는 이론들을 배격하고 헤브론 출신임을 주장한다.¹⁵ 그는 주로 흩어져 존재했던 레위인 제사장 가문들 사이의 갈등을 조명하는 일에 집중했다.¹⁶

알베르츠(R. Albertz)는 레위인의 등장에 요시야 개혁의 역할을 극적으로 강조한다. 그는 요시야 개혁이 여러 지역의 제사장 가문(실로의 엘

11 Cody, *A History of Old Testament Priesthood*, 136.

12 M. D. Rehm, “Levites and Priests”, *The Anchor Bible Dictionary*, IV (New York: Doubleday, 1992), 300.

13 Ibid., 304.

14 F. M.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208. “무스계”라는 용어를 위해, *ibid.*, 195-198; P. A. Viviano, “Mushi”, *ABD* 4, 930.

15 Ibid., 206-215; 민경진, “제사장 문서들 안의 레위인”, 2 n3.

16 참고. J. M. Hutton, “The Levitical Diaspora (I): A Sociological Comparison with Morocco’s Ahansal”, J. David Schloen (ed.), *Exploring the Longue Durée: Essays in Honor of Lawrence E. Stager* (Winona Lake: Eisenbrauns, 2009), 223-234. 그는 크로스의 연구가 사회인류학적으로 근거 있음을 조명해주었다.

리 가문, 벤엘의 아론 가문, 예루살렘의 사독 가문)을 공통의 ‘레위인 기원’이라는 “역사적 허구”를 통하여 제사장 직제의 통일을 도모했다고 주장한다.¹⁷ 쿠글러(R. Kugler)도 여기에 동조한다. 그는 사사기 17장을 근거로 군주 시대 이전의 레위인은 지파를 형성하지도 않았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들로 여기지도 않은 것으로 본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지역에서 제사장 가문이 형성되었고¹⁸ 요시야 개혁은 제사장 역사의 전환점으로서 제사장 직무를 정치종교 무대에 세운 사건으로서 모든 제사장을 레위의 후손이라고 진술하는 신명기 전통은 단일 제사장 직제를 세우려는 역사적 허구이며 신 33:8-11에서 모세의 레위 축복 단락은 레위 후손을 혈통과 기능과 사회적 신분으로 정의하고 레위인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하려는 작업을 강화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¹⁹ 또 신명기의 레위인 관련 두 가지 표현,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인”과 “레위 제사장”(신 18:1; 21:5; 31:9)에 관하여, 전자는 요시야 개혁으로 실직한 지방 성직자들을, 후자는 그냥 “제사장”이란 표현으로써 예루살렘의 사독 가문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²⁰

요약하면, 요시야 개혁을 기점으로 지방제사장을 레위인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입장(벨하우젠, 군네백, 알베르츠, 쿠글러), 이와 약간 다르면서도 같은 입장으로서는 제사장이 레위인의 전유물은 아니었으나 요시야 개혁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입장(아바, 코디), 그리고 처음부터 제사장을 레위인이라고 불렀다는 입장(렘)으로 나뉜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세 가지 사항이 주목된다. 첫째는 사사기 17장의 레위인을 일반인과 제사장

17 R. Albertz, 「이스라엘 종교사 I」(강성열 옮김), (고양: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3), 504-505.

18 R. Kugler, “Priests and Levites”, *The New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4 (Nashville: Abingdon, 2009), 600.

19 Ibid., 604.

20 Ibid., 605.

으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둘째는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적 변화에 주목하여 레위인의 기원과 존재를 이해하려고 했다. 셋째는 요시아 개혁의 역할을 중시한다. 넷째, 레위인은 곧 레위 지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형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와 달리 유럽 학자 일부는 이스라엘 사회의 변화보다는 문서에 초점을 둔 편집 비평을 활용하여 신명기와 신명기 역사서에 나타난 레위인 정보를 주전 7세기 말 요시아의 개혁을 반영한 기록으로 보지 않고 포로기 또는 포로 후기의 편집 작업의 결과로 해석한다.²¹ 다멘(U. Dahmen)은 신명기를 여섯 개의 편집층으로 분류하고 구체 대상으로 보도되는 레위인은 신명기 이전 군주 시대 자료에 등장하나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사회적 집단으로, “레위 제사장”은 신명기 이후 편집층(post-dtr redaction)으로서 혈통을 중시한 시대 즉 포로 후기에 제사장을 레위인으로 부르는 작업(levitizierung)의 결과라고 주장한다.²² 아첸바흐(R. Achenbach)는 모세의 레위 축복(신 33:8-11)을 주전 4세기경에 이루어진 오경의 편집 작업의 결과로 보고 제사장의 “레위인화(levitizierung)”도 이때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²³ 샤퍼(J. Schaper)는 레위인의 기원보

21 참고, P. Altmann, “What do the ‘Levites in your Gate’ have to do with the ‘Levitical Priests’? An Attempt at European-North American Dialogue on the Levites in the Deuteronomic Law Corpus”, Mark A. Leuchter and Jeremy M. Hutton(eds.), *Levites and Priest in Biblical History and Tradition* (Atlanta: SBL, 2011), 135-154. 그는 신명기의 “성 중에 거하는 레위인”이란 표현을 사례로 들어 북미 학자들이 군주 시대의 사건들 특히 북 왕국의 멸망, 산헤립의 침공, 요시아의 개혁에 방점을 두고 이해하는 것과 유럽 학자들이 포로 후기의 기록인 에스라 8장에서 귀환 공동체가 레위인의 참여를 촉구하는 장면을 연대기적 주요 표식으로 삼는 모습을 비교했다.

22 Ulich Dahmen, *Leviten und Priester im Deuteronomium: Literarkritische und redaktionsgeschichtliche Studien* (Bodenheim: PHILO, 1996), 394-408. 그는 신 18:6-8과 33:9-10 등과 같은 친-레위 구절을 신명기의 가장 늦은 편집 단락으로 분류한다(post-dtr).

23 R. Achenbach, “Levitishe Priester und Leviten im Deuteronomium: Überlieferungen zur sog. ‘Levitisierung des Priesgtertums’”, *ZABR* 5 (1999), 285-309.

다는 역대기와 에스라-느헤미야서를 바탕으로 페르시아 시대 예후드 사회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고찰한다.²⁴ 사무엘(H. Samuel)도 전통적으로 포로전기 레위인의 기원과 활약과 위상을 보도하는 신명기(33:8-11; 10:6-9), 출애굽기(32:25-29), 창세기(29, 34)의 구절들을 페르시아 시대 후반의 신명기의 후기 편집(post-Dtr) 또는 제사장 문헌의 후기 편집(post-P) 구절들로 분석한다.²⁵ 전재영은 다멘과 아켄바흐의 연구를 앞세워 출애굽기 32장 26-29절, 신명기 33장 8-11절, 사사기 17-18장을 주전 4세기 페르시아 시대에 뒤늦게 작성된 본문으로 본다.²⁶ 그리고 제사장의 레위인화(Levitizierung)는 혈통만이 유일한 합법적 수단이 된 포로기에 일어난 것이라고 본다. 또 사사기 17-18장은 제사장 직제가 레위인의 전유물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며 신명기 33장 8-11절에서 제사장 직무를 레위 지파의 권한으로 삼는 생각은 페르시아 시대에 작성된 말라기 2장 1-9절과 3장 3절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한다.²⁷ 또 사독계 레위 제사장과 성전의 하급 관리 요원이 된 레위인을 구분하는 에스겔 44장의 이유를 민수기 3-4장, 8장, 18장에서 찾고 그것을 제사장 문헌 가운데 가장 늦은 편집 단락(Post-P)으로 본다.²⁸ 마지막으로 역대기에서 레위인은 자신들이 하급 성전관리인으로 좌천되고 따돌림당한 현실을 수용하고 자신들이 성직을 수행하는 집단이라는 의식을 발전시켰고 성막의 부수적 직무, 가수, 문지기, 서기관 등을 레위인이란 명칭으로 통일시켰다고 주장한다.²⁹

24 J. Schaper, *Priester und Leviten im achämenidischen Juda* (Tubingen: Mohr Siebeck, 2000).

25 H. Samuel, *Von Priestern zum Patriarchen: Levi und die Leviten im Alten Testament* (Berlin: De Gruyter, 2014).

26 Jeon, "Levites", 339.

27 Ibid., 340.

28 Ibid., 340-341.

29 Ibid., 342-345.

이들의 견해는 구약성서가 제2 성전 시대 산물이라는 데이비스(P. R. Davies)³⁰의 주장과 상응한다. 하지만 레위인의 기원 논의에 레위 지파의 형성에 관한 질문은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혀 다루지 않는다. 이런 입장은 초기 이스라엘 사회에 관한 학문적 성과는 물론이고 주전 10-9 세기의 군주 시대 초반에도 문서 작성 능력이 있다는 점³¹을 배제하고 있어서 동의하기 어렵다.

위의 두 그룹이 모두 초기 이스라엘 사회에 관한 학문적 성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과 달리, 로이흐터(M. Leuchter)는 이를 레위인 기원 연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 이야기부터 군주 시대 초반의 사무엘, 아비아달, 아히야, 호세아, 신명기, 예레미야를 거쳐 포로 후기의 느헤미야, 12 예언서, 시편과 역대기까지 살펴면서 레위인의 역사를 해설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킨 집단이었다고 주장한다.³² 사회과학적 접근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는 레위인이 “가입하다/연결하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어근 *라멧-바브-헤*(l-w-h)와 관련이 있고³³ 레위인의 효시를 엘리 제사장 가문에 위탁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사무엘로 본다. 이런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역대기서(대상 6:16-30, 특히 28절)는 족보로 정리했을 뿐이다.³⁴ 또 레위

30 P. R. Davies, *In Search of 'Ancient Israel'*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75-93.

31 M. Richelle, “Elusive Scrolls: Could Any Hebrew Literature Have Been Written Prior to the Eighth Century BCE?”, *VT* 66 (2016), 556-594; Robert B. Coote and David R. Ord, 「성서의 처음 역사」(우택주/임상국 옮김), (과주: 한울엠플러스, 2017).

32 M. Leuchter, *The Levites and The Boundaries of Israelite Ident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참고. 김영선, “서평: Mark Leuchter, *The Levites and the Boundaries of Israelite Ident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신학전망」 200호 (2018), 218-231.

33 Leuchter, *The Levites*, 84.

34 *Ibid.*, 85 n109. 그는 레위인이 군주 시대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근거 위에서 군주 시대 후반이나 포로기에 등장했다는 주장을 일축한다(*ibid.*, 81-92).

인들은 무스 계열 엘리 가문과 같은 제사장의 부패와 권력 남용을 해소 하는 안전장치로 등장하여 결국 제사장 직제에 동화된 일반인들을 나타낸다고 보았다.³⁵ 그는 출애굽 17장 1-7절과 32장 26-29절을 근거로 엘 신 숭배자였던 사무엘 같은 레위인이 모세 가문의 야훼 제의와 통합 하는 역할까지 감당했을 것이라고 풀이한다.³⁶ 하지만 그도 레위인을 하나의 동질 집단처럼 설명하고 또 온 땅에 흩어져 살던 이들이 어떤 계기로 하나의 독립된 지파가 되었는지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 또 사무엘과 유사한 형편과 계기로 제사장이나 제사 보조원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레위인의 출발점으로 다루면서도 신명기에 구제가 필요한 레위인을 너멜라(R. Nurmela)처럼³⁷ 주전 722년 이후 남 왕국으로 피신한 북 왕국 출신 제사장으로 간주한다.³⁸ 그렇다면 남 유다 출신 제사장들(삿 17장의 유다 출신 레위인)은 원래 레위인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뜻인지 질문이 생긴다. 이런 문제점을 보여주는 견해가 나아만(N. Na'aman)으로부터 나왔다. 그는 레위인을 산헤립 침공 시절에 유다 산지와 세펠라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피신한 제사장들이라고 주장했다.³⁹ 이와 전혀 달리 알스트림(G. W. Alström)은 전국에 흩어진 채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레위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이 군주 시대에 왕실이 지방으로 파견한 행정관리였다고 주장하였다.⁴⁰ 하지만 군주시대 행정관들

35 Ibid.

36 Ibid., 86-89.

37 R. Nurmela, *The Levites: Their Emergence as a Second-Class Priesthood* (Atlanta: Scholars Press, 1998).

38 Leuchter, *The Levites*, 160. 그는 신명기를 사마리아가 멸망한 뒤 유다로 피신한 북왕국 출신의 제사장이며 레위인 서기관 집단의 작품으로 본다. 그래서 “성 중의 레위인”은 남 유다에 피신한 북 왕국 출신 제사장들을 가리킨다고 본다(ibid., 180).

39 N. Na'aman, “Sojourners and Levites in the Kingdom of Judah in the Seventh Century”, *ZABR* 14 (2008), 237-279.

40 G. W. Ahlström, *Royal Administration and National Religion in Ancient Palestine* (Leiden:

이 어떻게 포로후기에 제사장 집단으로 변모했는지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 너멜라와 나아만은 레위인이 적어도 북쪽이든 남쪽이든 본래부터 제사장으로 기능하던 사람들이라는 입장임을 표명하였다.

정리하면, 평민이 제사장이 되었던 견해(로이호터)와 요시야 개혁과 같은 특별한 역사적 상황 때문에 지방제사장들을 레위인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제사장의 레위인화(벨하우젠 이래 대다수 학자), 그리고 이 작업마저 포로 후기 즉 페르시아 시대에 일어났다는 견해로 나뉜다. 유럽학자들의 입장을 제외하면 진실은 양자의 중간쯤에 있을 것 같다. 기존 성소에는 제사장이 존재했다. 평민이 간혹 사무엘처럼 특별한 경우에 제사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 사람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레위인이란 명칭으로 일반화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벨하우젠이 언급하듯 사회적 정황 때문에 생긴 명칭이라는 입장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레위인이 제의를 거행하는 전문가인지 지파 명칭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를 가진 명칭인지는 출처마다 변별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레위인 재판관, 레위인 예언자, 레위인 서기관처럼 구약성서에서 레위인을 제사 직무 이외의 경우에 연결하여 부르는 사례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들은 처음부터 제사 직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기능인을 부르는 명칭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레위인이 시초부터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제의 기능인을 부르는 명칭이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지지하는 증거를 찾아보려고 한다.

Brill, 1982), 50-51.

3. 제의 기능인으로서의 레위인

초기 이스라엘은 후기청동기 시대의 가나안 저지대에 살던 농민과 목축유목민이 주변의 제국과 도시국가가 붕괴하는 와중에 형성되었고 주로 중앙산지에 거주지를 형성하였다.⁴¹ 객관적 문헌 증거로서 메르넵타 비문은 주전 13세기 말 이집트의 메르넵타 왕이 가나안에서 파멸시킨 무리 중 하나를 “이스라엘”이라고 표기하였다. 그 단어는 사람을 가리는 한정사가 붙어 있으므로 이것은 도시국가가 아니라 집단 즉, 지파 사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⁴² 초기 이스라엘 사회의 구성원은 원래 가나안에 살던 주민들(농민과 유목민 포함)이라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⁴³

1) 전환기 팔레스타인의 성소들

후기 청동기시대 가나안의 사회상을 알려주는 아마르나 서신에 따르면 언급된 가나안의 도시국가는 예루살렘, 세겜, 라기스, 므깃도, 게셀 등이다.⁴⁴ 이곳들에서는 후기 청동기시대와 철기 I 시대(1200-1000 B.C.E.)에 제의 장소로 계속 사용된 증거가 나왔다. 게셀은 중기청동기시대와 후기청동기에 연속해서 성소로 사용된 곳이 발견되었다.⁴⁵ 므깃

41 L. E. Stager, “The Archaeology of the Family in Ancient Israel”, *BASOR* 260 (1985), 1-35; S. Ahituv and E. D. Oren(eds.), *The Origins of Early Israel-Current Debate* (Beersheva: Ben-Gurion University of the Negev Press, 1998); V. Fritz, *The Emergence of Israel in the Twelfth and Eleventh Centuries B.C.E.* (Atlanta: SBL, 2011).

42 M. G. Hasel, “Israel in Merneptah Stela”, *BASOR* 296 (1994), 45-61; Coote, “이스라엘의 등장, 다시 보기”, 「신명기 역사」 (우택주 옮김), (과주: 한울아카데미, 2022), 117.

43 참고, 우택주, “초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복음과 실천」 46집 (2010), 9-34.

44 W. Moran, *The Amarna Letter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2).

45 W. G. Dever, “The Gezer Fortifications and the ‘High Place’: An Illumination of

도의 성전 2048은 원래 중기청동기시대에 세워졌고 후기청동기 시대에 계속 사용되었다.⁴⁶ 세겜은 중기청동기 시대의 주요 요새 도시였는데 중기청동기 후반에 버려졌다가 후기 청동기시대 초반에 재정착되었다. 요새 성전 II은 요새 성전 I(Fortress Temple I) 위에 지어졌다. 그것은 12세기 후반에 파괴되어 철기시대 II까지 버려졌다가 다시 사용되었다.⁴⁷ 특히 후기 청동기시대 성소에 붙어 있는 건물 5988은 성전 관리인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⁴⁸ 라기스에서는 도로에 인접한 해자 성전 I과 II, 그리고 꼭대기 성전(Summit Temple) 등이 발견되었다.⁴⁹ 예루살렘에서는 다메섹문 북쪽에서 이집트 19왕조 시절의 가나안 성전으로 보이는 유적이 발견되었다. 거기에는 이집트 신 오시리스을 언급하며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묘사된 비석 조각도 출토되었다.⁵⁰

철기시대 I의 세겜에서는 지층 XI의 성역9에서 대형 이집트-가나안식 요새 성전 2b가 발견되었다.⁵¹ 이 시기의 실로에서는 식량 저장과 보관 목적의 건물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전형적인 성소용 건물은 아니나 제의시설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⁵² 아마도 순례하는 성소로 사용된 것 같다.⁵³ 전체적으로 마을 성소로 사용된 흔적이 남아있는

Stratigraphic Methods and Problems”, *Palestine Exploration Quarterly* 61-70 (1973), 244; B. A. Nakhai, *Archaeology and the Religions of Canaan and Israel* (Boston: ASOR, 2001), 126 재인용.

46 Nakhai, *Archaeology and the Religions of Canaan and Israel*, 133-135.

47 Ibid., 140-141.

48 Ibid., 141.

49 Ibid., 141-148.

50 Ibid., 151-152.

51 Ibid., 175.

52 I. Finkelstein, *The Forgotten Kingdom: The Archaeology and History of Northern Israel* (Atlanta: SBL, 2013), 25.

53 Nakhai, *Archaeology and the Religions of Canaan and Israel*, 176.

곳은 하술, 단, 므깃도를 포함해서 아이, 키르벳 랏다나, 텔 키리, 텔 엘-바이얏, 텔 이르비드, 텔 에스-사이드에, 텔 우메이리 등이다.⁵⁴ 나카이(Nakhai)는 후기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 I의 성소가 연속적으로 사용된 곳이 몇 군데 있다고 주장한다.⁵⁵ 벳산, 디르사(텔 엘-파라)에서도 후기 청동기시대 성전을 철기시대 I까지 사용했다.⁵⁶

후기 청동기시대의 도시국가가 무너진 이후 철기시대 I은 지파 연합의 후원과 보호 아래 촌락사회가 확장되었다. 각 촌락에서는 가족 중심의 제의와 촌락 단위의 공적 제의가 함께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⁵⁷ 가정 제의는 집 안의 가장(paterfamilias)이 거행하거나 가족 중 한 명을 제사장으로 위촉하거나(삿 17:5) 또는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기도 했다(삿 17:10-13). 애커만(S. Ackerman)은 텔 마소스와 키르벳 랏다나에서 여러 채의 집이 함께 인접하여 지어진 가옥 터를 사사기 18장에서 미가의 집 안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다고 묘사한 구절들(삿 18:3, 13-14, 15, 22)의 물리적 증거로 보았다.⁵⁸

후기 청동기시대 도시국가는 철기시대 I의 촌락사회든 제의 기능인들은 거주민의 신앙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항상 활동했다. 제사장들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적이 없다.

54 Ibid.

55 Ibid., 192.

56 K. van der Toorn, *Family Religion in Babylonia, Syria & Israel: Continuity & Change in the Forms of Religious Life* (Leiden: E. J. Brill, 1996), 243.

57 참고. B. A. Nakhai, "The Household as Sacred Space", R. Albertz, B. A. Nakhai, S. Olyan and R. Schmitt(eds.), *Family and Household Religion: Toward a Synthesis of Old Testament Studies, Archaeology, Epigraphy, and Cultural Studies* (Winona Lake: Eisenberaus, 2014), 53-62.

58 S. Ackerman, "Household Religion, Family Religion, and Women's Religion in Ancient Israel", John Bodel and Saul M. Olyan(eds.), *Household and Family Religion Antiquity* (Oxford: Blackwell, 2008), 130-131.

2) 신명의 혼합(엘과 야훼)

구약성서는 곳곳에서 고대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 한 분만 섬긴 것이 아니라 엘, 바알, 아세라, 아낫, 아스다롯과 같은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보도한다(삿 2:11-3:6). 학자들은 구약성서의 야훼 신앙이 후기 청동기시대 가나안에 존재했던 토착 신앙에 비해 후발주자로 등장했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고대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이 구약성서를 기록하는 동안 가나안의 토착 신앙을 표현할 때 사용하던 표현을 전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크로스는 가나안의 토착 신앙적 표현들이 어떻게 야훼 신앙의 신현현 전승을 표현하는 데 활용되었는지를 설명했다.⁵⁹ 이를테면 시 29편은 원래 비를 내리는 폭풍의 신 바알을 찬미하는 노래였으나 현재 형태는 야훼를 찬미하는 노래가 되었다.⁶⁰

이스라엘이 야훼를 신앙하게 되었다는 진술들은 가나안의 최고신 엘과 야훼라는 신명을 혼용했다는 증거로 이해된다. 우선, “이스라엘”은 “이스라”와 “엘”의 합성어로서 그 뜻은 “하나님이 싸운다”(어근 \acute{s} -r-h), “하나님이 의롭다”(어근 y - \acute{s} -r), “하나님이 다스린다”(어근 \acute{s} -r-r)일 수 있다.⁶¹ 창세기의 족장들은 야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기록하는 곳곳에서 야훼 하나님을 신명 엘을 사용하여 표현했다. 예를 들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엘 엘 욘, 창 14:22; 신 32:8; 시 97:7; 107:11), 영원한 하나님(엘 올람, 창 21:33), 전능한 하나님(엘 샤다이, 창 28:3; 35:11; 48:3) 등이 있

59 F. M.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147-215.

60 Coote and Ord, *In the Beginning: Creation and the Priestly History* (Minneapolis: Fortress, 1991), 21; 트렘퍼 롱맨, 레이몬드 덜러드, 「최신 구약개론」 2판 (박철현 옮김), (고양: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9), 346-347.

61 T. Römer, *The Invention of God*, R. Geuss(tra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72-74.

다.⁶² 그러나 출애굽기 6장 2-3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처음으로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밝힌다.

두 개의 신명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혼용하게 되었는지는 추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크로스는 야훼가 엘 제의에서 엘 신을 부르는 별칭이며 시나이 거주집단과 세일 지역 거주집단의 연합을 통해 엘 신이 곧 야훼라고 여기게 되었다고 주장한다.⁶³ 뢰머(T. Römer)는 이런 과정의 근거를 출애굽기 19-24장의 시내 산 언약 체결 기록에서 확인하고,⁶⁴ 모세의 축복으로 알려진 신명기 33장 2-5절에서 결정적 단서를 발견한다. 특히 32:5,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에로다”라는 문장은 “야훼의 백성의 수령”과 “이스라엘의 지파들” 사이에 이루어진 “일종의 통합의 단서”이며 “야훼의 백성의 수령들이 이스라엘 지파들과 만나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이 구절이 야훼가 이스라엘의 최고 하나님으로서 취임하는 흔적이라고 생각한다.⁶⁵ 그는 모세를 이집트 문헌에 종종 등장하는 시내 반도의 유목민인 샤수(shasu)와 연결 짓고 그들의 역사적 존재와 활동을 근거로 삼는다.

로이히터는 야훼가 신들의 모임에서 엘 신보다 하급 신이었으나 나중에 엘 신과 동급이 되었다고 보고,⁶⁶ 바다의 노래(출 15:1-18)는 이미 엘 신과 야훼 신앙의 동화가 완성된 결과이며⁶⁷ 엘 신앙에 야훼 신앙을

62 Ibid., 78-81.

63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71-72.

64 Römer, *The Invention of God*, 82-85.

65 Ibid., 85.

66 Leuchter, *The Levites*, 56 그리고 n99. 근거는 신 32:8-9의 LXX와 4QDeutJ이다.

67 Ibid., 42-57.

적응시킨 삶의 자리는 주로 세겔과 실로에서 거행되었던 무교절이었다고 고찰한다.⁶⁸ 그리고 이런 작업을 주도한 집단은 모세의 후손 즉 무스계 사람들과⁶⁹ 모세와 혈통은 다르지만 모세를 수호성인으로 섬기는 사무엘 같은 레위인들이라고 주장한다.⁷⁰

제의는 제사장(과 제의보조원)과 참여자들로 이루어진다. 참여자가 정치권력자들이라면 제의는 그들의 영향력과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⁷¹ 야훼와 엘 신, 두 신명의 혼용은 두 가지 상이한 제의의 통합이나 하나의 제의 내부에서 두 신명 사이의 갈등이나 공존을 표명하는 특별한 사건(들)을 가정하게 만든다. 만일 통합이나 융화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그런 제의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의 또는 사이의 수용이나 합의 또는 대체 과정이 있어야 한다. 종교와 정치의 깊은 연관성을 고려할 때 이런 과정 배후에는 정치권력의 변동과 밀접한 상관이 있다. 이 점에서 스미스(M. S. Smith)의 연구는 주목된다. 그는 초기 이스라엘의 등장에 관한 학자들의 합의를 출발점 삼아 야훼 신앙과 가나안 종교는 수렴 단계와 차별 단계를 거쳐 유일신 신앙으로 발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군주제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였다.⁷² 고대 사회의 군주제도라는 정치 시스템 안에서 종교 시스템의 역할은 필수불가결한 일부였다.

68 Ibid., 79-80.

69 Ibid., 70;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196-205, 215.

70 Leuchter, *The Levites*, 81-86; K. van der Toorn, *Family Religion in Babylonia, Syria and Israel: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Forms of Religious Life* (Leiden: E. J. Brill, 1996), 303.

71 사울 왕은 놉 제사장들을 죽였고(삼상 22장) 다윗 왕은 자기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삼하 8: 18). “대신”(개역개정)은 히브리어 코하님(제사장들)을 번역한 것이다. 삼하 20:25의 “대신”도 히브리어 코헨(제사장)이다.

72 M. S. Smith, *The Early History of God: Yahweh and the Other Deities in Ancient Israel*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1990). 군왕시(시 2편, 89편)가 대표적 증거이다.

3) 알파벳 낙서

여기서는 후기 청동기시대의 도시국가에서 활동하던 제사장 집단과 제사 관습이 국가가 붕괴하고 철기 문명권으로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고 존속했다는 주장의 간접적 증거로서 제사장들처럼 사회적 지위와 전문성을 지닌 서기관 집단이 존재했던 증거를 찾아보는 것도 유용하다. 슈니더빈드(W. Schniedewind)는 “중기청동기시대와 후기 청동기시대(2000-1200 B.C.E.)의 서기관과 글의 초국가적 역할은 초기 철기시대(1200-840 B.C.E.)에도 계속되었다. 서기관과 글은 민족화되지 않았고 초국가적 가나안 문화의 일부였다.”라고 말했다.⁷³

후기청동기 시대 가나안 도시국가가 남긴 문헌 증거로는 설형문자로 기록된 아마르나 문서가 있다. 이어서 철기 I 시대(1200-1000 B.C.E.)의 초기 이스라엘이 남긴 기록으로는 라기스 주전자 모양 그릇(Lachish Ewer Bowl), 이즈벳 사르타 도기 조각(Izbet Sarta Ostrakon), 벅세메스 도기 조각(Beth-Shemesh Ostrakon), 텔 에스-사피 비문(Tell es-Safi Inscription), 마나하트 도기 조각(Manahat Ostrakon), 키르벳 케이야파 비문(Khirbet Qeiyafa Inscription),⁷⁴ 텔 자이트 비문(Tell Zayit Inscription)⁷⁵ 등이 있다. 이들은 주전 12세기부터 10세기 사이에 기록된 것이며 기록된 언어는 페니키아어라는 견해와⁷⁶ 가나안어(또는 고대 히브리어)라는 견해로⁷⁷ 나뉜다. 이즈벳 사르타, 벅 세메스, 텔 자이트의 것과 같은 알파벳 낙서는 설형문자

73 W. Schniedewind, *A Social History of Hebrew*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3), 51.

74 Ibid., 64-65.

75 Ron E. Tappy and P. Kyle McCarter(eds.), *Literary Culture and Tenth-Century Canaan: The Tel Zayit Abecedary in Context* (Winona Lake: Eisenbrauns, 2008).

76 Christopher A. Rollston, *Writing and Literacy in the World of Ancient Israel: Epigraphic Evidence from the Iron Age* (Atlanta: SBL, 2010).

77 Schniedewind, *A Social History of Hebrew*, 55.

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 것도 있고 이집트의 상형문자나 후대의 히브리어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 것도 있다. 이러한 증거들은 전환기에 글을 쓰는 전문가가 존재했음을 알려준다. 알파벳 낙서의 경우, 글의 수준을 고려한다면 그런 글을 기록한 사람이 반드시 서기관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선형 알파벳을 썼다는 사실은 그런 글씨의 존재와 글쓰기를 전수하는 전문가와 견습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샌더스(S. L. Sanders)는 이처럼 중앙집권형 국가가 없는 시대에 글씨가 기록된 물건들이 대체로 화살촉이나 단검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그래서 이 당시의 글 쓰는 사람은 오랫동안 제국과 도시국가 군주에게 권력을 빼앗긴 채 지냈던 지역 군장들(chiefs)에게 고용된 서기관이거나 지역과 지방 교역에 참여하는 토기장이나 금속 세공인과 같은 장인(artisan)일 것이라고 주장한다.⁷⁸ 전환기는 중앙 행정 시스템이 부재하던 시기이다. 샌더스는 이 시기에 사라진 것은 후기청동기 시대에 지배적이었던 바빌론의 설형문자이었을 뿐이고 그동안 사용되던 선형 알파벳은 그대로 남아서 발전했다고 본다.⁷⁹ 글을 새기는 일은 글쓰기를 배우지 못한 평민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샌더스가 추정한 대로 글을 쓰는 토기장이나 금속 세공인은 어쩌면 도시국가가 붕괴한 뒤에 유력한 지역 군장들에게 기존의 서기관들이 고용된 흔적일 가능성이 크다. 또 지역에서 세력을 장악한 군장들은 성소를 세우거나 규모가 큰 촌락을 통제하면서 서기관을 고용했을 수 있다. 그것도 아니라면 과거에 궁전에

78 Seth L. Sanders, *The Invention of Hebrew*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9), 107, 131; cf. Robert D. Miller, *Chieftains of the Highland Clans: A History of Israel in the 12th and 11th Centuries B.C.* (Grand Rapids: Eerdmans, 2005); Ryan Byrne, "The Refuge of Scribalism in Iron I Palestine", *BASOR* 345 (2007), 1-31(특히 22-23); Jeremy Hutton, *Transjordanian Palimpsest: The Overwritten Texts of Personal Exile and Transformation 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Berlin: De Gruyter, 2009), 169-175.

79 Sanders, *The Invention of Hebrew*, 106-107.

고용되었던 서기관들이 국가 붕괴로 실직한 뒤에 토기장이와 금속 세공인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가운데 군장들에게 고용되었을 수도 있다.

4) 소결

위의 세 가지 증거들(성소, 신명의 혼합, 서기관의 존재)은 비록 간접적이지만 사회구조를 고려할 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초기부터 곳곳의 성소에서 제의를 거행하는 제의 기능인들(제사장과 보조원)이 활동해 왔음을 알려준다. 우리는 그들을 레위인이라고 불렀고 훗날 레위지파로 분류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촌락 중심의 지파 사회에 세워진 제의를 중심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초기 이스라엘은 대체로 평화로웠으나 일부 구성원은 안정된 생계를 위해 이주하기도 했다(삿 17:7-13의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 삿 18:14-31의 단 성소의 제사장). 제사장 가문이 아닌 경우에도 성소에 맡겨져 훈련받으며 제사장이 되거나(미가의 아들, 사무엘) 보조원으로 일한 사람(모세의 수종 여호수아, 출 33:11)이 있었고 왕실이 임명하여 제사장이 된 사람(다윗의 아들, 삼하 8:18 [대신=제사장들])도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군주 시대에 강력한 정치권력의 비호와 후원을 받으면서 야훼 신앙을 확립하는 데 활용되었을 것이다(예, 출 32:26-29).

4. 레위 지파의 형성 시기

레위인이 후기 청동기시대부터 철기시대로 이행하는 내내 여러 성소에서 제의를 집행하는 제의 기능인들이고 하나의 혈연집단이나 친족이 아닌 채 곳곳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들은 언제 레위 지파로 통합되었을까? 언제부터 “레위인”은 누군지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되었을까? 우선,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의 독립된 지파

를 스스로 형성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자명하다. 흩어져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혈족관계를 만들 수 없었다. 따라서 지파 형성 시기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파의 기원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군주 시대에 형성되었다는 견해와⁸⁰ 포로기 이후에 형성되었다는 견해이다.⁸¹ 쿠틀은 지파의 기원을 다룰 때 국가의 정치적 개입과 역할은 반드시 고려할 변수로 작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⁸² 그는 이스라엘의 출발을 후기 청동기시대(LBA) 도시국가와 공존했던 지파 연합(a tribal coalition)으로 본다.⁸³ 그 증거가 이 시기의 중앙산지에 집중된 주거 군락 확대이다.⁸⁴ 지파를 사회적 명칭이 아니라 정치적 명칭으로 생각하는 그는 지파가 특정 지역을 근거지로 삼지 않는 매우 유동적 개념이며 지파의 정체성은 지역 정체성을 확장한 것이 아니라 지파와 국가의 연관성에 의지하여 형성된 개념이라고 설명한다.⁸⁵

레위 지파는 군주 시대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국에 흩어져 제의 활동에 종사하는 레위인을 하나의 독립된 지파로 부르게 된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 작업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때는 적어도 세 가지 경우

80 N. K. Gottwald, *Tribes of Yahweh* (Maryknoll: Orbis, 1979), 373. 그는 레위 지파가 왕국 분열 이후에 삽입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반면에 우택주 (“고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제도는 언제 제정되었는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0집 (2013), 5-36)는 열두 지파 제도가 북 왕국의 예후 통치기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주장한다.

81 C. Levin, “Das System der Zwölf Stämme Israels”, J. A. Emerton(ed.), *Congress Volume, Paris*, VTS 61 (Leiden: Brill, 1995), 163-178.

82 R. B. Coote, “Tribalism: Social Organization in the Biblical Israels”, Philip F. Esler(ed.), *Ancient Israel: The Old Testament in its Social Context*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6), 35-49.

83 Coote, 「신명기 역사」(우택주 옮김), (파주: 한울엠플러스, 2022), 104. “이스라엘 지파 사회는 다윗 시대보다 아주 오래전에 가나안의 작은 도시국가들에 맞서는 하나의 정치적 실체를 구성하였다.”

84 Ibid., 116-118.

85 Ibid., 147.

가 있다. 첫째,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주전 10세기이다. 로이흐터는 삼상 6:14-15와 삼하 15:24에 근거하여 이 시기를 레위인의 정체성과 이데올로기를 확립한 결정적 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⁸⁶ 그러나 이때 온 땅에 흩어져 있는 그들을 하나의 독립된 지파로 삼을 계기를 찾기가 어렵다. 둘째,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신앙에 도취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야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앞세워 보좌를 차지한 예후 왕조가 다스리던 9세기 후반이나 8세기 중반이다.⁸⁷ 예후가 12지파로 구성된 통일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논의를 위한 정보(왕상 19:19)가 남 유다 왕실에서 기록한 신명기 역사서의 일부라는 점은 논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셋째, 북 왕국이 사라지고 남 유다만 홀로 존재하던 시절에 앗수르의 위협에 맞서 열두 지파로 이루어진 구성원들의 단합을 요구하던 주전 8세기 말 히스기야(대하 30:22; 31:2)와 주전 7세기 말 요시야 시절이다. 두 왕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하나로 레위 지파를 형성하기에 더 적절한 시기는 요시야 때로 보인다(신 10:8-9; 18:1-8; 27:9; 31:9).⁸⁸

요시야 왕은 제의 중앙화를 위해 흩어져 있는 레위인 제사장을 하나의 지파로 제정하여 왕실의 관리와 통제 아래 두고 그들의 협조를 얻어냈을 것이다.⁸⁹ 그래서 실질한 지방제사장을 구제하는 조치를 신명기

86 Leuchter, *The Levites*, 93-98.

87 참고, 우택주, “고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제도는 언제 제정되었는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0집 (2013), 5-36. 열두 겨러트 소로 밭 가는 엘리사 묘사(왕상 19:19)는 시사적이다. 이외에 열두 지파를 염두에 두고 숫자 열둘을 사용한 단락들은 출 24:4; 신 1:23; 왕상 18:31-32; 수 4장 등이다.

88 히스기야는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명명한 점, 에브라임의 영웅 여호수아를 땅 정복과 분배의 영웅으로 승격시킨 점, 세겜 전승(수 8:30-35; 24:1-28)을 포함한 점을 근거로 여호수아서 일부가 히스기야 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Coote, 「신명기 역사」, 108-112).

89 “열두 지파”는 초기 이스라엘 때부터 인식된 전승이었으나 지파들의 명칭과 구체적 목록은 드보라의 노래에 등장하는 마길과 길르앗(삿 5장), 그리고 요셉을 에브라임과 므낫

법전에 누누이 명시한 것이다(신 14:29; 16:11, 14; 16:11-13). 특별히 요시야 개혁의 중심인물인 제사장 힐기야는 “야훼는 나의 분깃이다”는 뜻을 지닌다(참고. 수 13:14, 33; 14:3, 4). 그런 맥락에서 신명기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서가 포함된 땅 분배 기록(수 13-22장)과 요시야 개혁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⁹⁰ 또 여호수아서가 실로를 7개 지파의 기업 분배와 레위인의 정착지 분배가 시행된 장소로 언급하는 것(수 18:1-10; 21:1-41)은⁹¹ 그의 개혁을 지지한 파벌이 에브라임의 실로와 베냐민의 아나돗에 거주하는 레위 집단임을 알려 주는 단서이기도 하다.⁹²

요시야 왕실이 레위 지파를 열두 지파 가운데 하나로 포함하는 정치적 행정적 조치를 취했다는 가정에 비추어 기존의 레위인 기원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몇 가지 주장을 다시 살펴보자.

세로 대체하는 과정(창 49장과 신 33:13-17)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적 변동이 있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포함하는 조치가 요시야 때 실행되었다는 가정은 정당하다. 학자들은 레위를 축복하는 신 33:8-10이 후대에 편집되었다고 보지만 적어도 33:11은 다윗 왕조에 작성된 J 문서만큼이나 오래된 본문이다(F. M. Cross and D. N. Freedman, *Studies in Ancient Yahwistic Poetry* (Grans Rapids: Wm. b. Eerdmans, 1975), 67, 76). 따라서 요시야 시대에 이를 수용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90 Coote, “Joshua”, *The New Interpreter’s Bible*, II (Nashville: Abingdon, 1998), 565. 요시야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토 수복(revanchism)”이다.

91 수 21장이 포로기 또는 그 이후에 P가 작업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논의를 방해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실로라는 지명이다.

92 Coote, “Joshua”, 687. 이 파벌은 힐기야, 사반, 살룸, 살룸의 아내 홀다, 예언자 예레미야(그의 고향 아나돗은 솔로몬에게 쫓겨난 다윗의 제사장 아비아달과 같고 아비아달은 실로의 엘리 제사장 후손으로 간주된다(삼상 14:3; 23:6; 삼하 8:17))와 바룩,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사반의 아들 엘라사, 바벨론이 총독으로 임명한 그달랴 등을 포함한다. 사독 제사장 가문이 다윗 왕조 내내 예루살렘 성전의 실세였다는 주장은 여기서 차단된다. 즉 힐기야는 사독 가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되머는 요시야 개혁을 부정하면서도 그것을 “사반 가문의 개혁”이라고 부르는 편이 낫다고 말한다(Römer, “The Rise and Fall of Josiah”, O. Lipschits, Y. Gadot, and M. J. Adams(eds.), *Rethinking Israel: Studies in the History and Archaeology of Ancient Israel in Honor of Israel Finkelstein* (Winona Lake: Eisenbrauns, 2017), 337). 또한 사독 제사장의 허구성에 대하여 참조. A. Hunt, *Missing Priests: The Zadokites in Tradition and History* (New York: T&T Clark, 2006).

1) 구약성서에 나타난 레위인 언급은 군주 시대 이전부터 통용되던 고대의 정보로 볼 수 있다. 레위인은 열두 아들 출생 기사(창 29-31장), 세겜 이야기(창 34장), 야곱의 축복(창 49장), 그리고 시내 산 단락의 황금 송아지 전승의 일부(출 32:26-29)에 나타난다. 이 전승들을 P와 역대기의 족보와 비교하면서 페르시아 시대의 편집 단락이라는 입장은 논리적이지만 초기 이스라엘 사회에 제사장들이 존재했다는 정보는 무시한다. 분명히 레위인은 페르시아 시대에 처음 창안된 정보가 아니다. 기존의 정보와 전통을 P와 역대기의 족보에서 신학적 의도를 담아 기술했을 뿐이다. 만일 레위 관련 정보가 페르시아 시대에 처음으로 창작된 것이라면 구태여 레위를 조상으로 제시한 이유가 무엇일까? 차라리 사독이나 아론을 조상으로 삼는 족보를 작성하는 것이 더 편리하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레위를 열두 지파 중 하나의 지파 명칭으로 삼는 사실조차 레위와 레위인의 존재가 아론이나 사독보다 훨씬 폭넓은 개념이고 보편적이며 고대의 정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모세를 포함하여 아론이나 사독과 같은 유명한 제사장들이 모두 레위라는 이름의 지파에 포함되고 그의 족보에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런 생각을 정당화해준다.

2) 야곱의 열두 아들 이야기(창 29:31-31:24)는 전통적으로 J와 E의 결합으로 본다.⁹³ 하지만 구약성서가 북 왕국 이스라엘 전승을 남 유다가 받아들인 증거를 논하는 플레밍(D. E. Fleming)은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가 주전 8세기 이후에 현재 위치에 등장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⁹⁴ 그 이유는 유다가 드보라의 노래에 없고 시므온과 레위는 정

93 R. E. Friedman, 「누가 성서를 기록했는가?」(이샤야 옮김), (서울: 한들, 2008), 335; Coote, 「성서의 처음 역사」, 247-253. 참고, C. Westermann, *Genesis 12-36: A Commentary* (Minneapolis: Augsburg, 1985), 472. 베스터만은 J와 E의 구분을 배격하고 J를 개정한 것이며 창 49장보다 늦은 본문으로 본다.

94 D. E. Fleming, *The Legacy of Israel in Judah's Bibl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치적 실체나 지리적 기초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세 아들은 목록에서 삭제해도 출생 이야기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한다. 플레밍은 이 세 아들의 목록이 포로기와 그 이후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을 제안하나 주전 7세기 유다가 홀로 존재하던 때에 삽입되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더구나 플레밍은 야곱의 축복(창 49장, J 전승)에서도 시므온-레위-유다가 주전 8세기 이후에 추가되었을 것이라고 고찰한다.⁹⁵ 따라서 레위에 관한 정보는 적어도 7세기의 요시야 시절에 활용되었을 수도 있다.

3) 사사기 17장의 레위인 이야기는 레위인에게 호의적 태도를 가진 신명기 역사서의 입장과 일치한다(참고. 왕상 12:31). 미가는 베들레헬에서 온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이치에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삿 17:13). 이 레위인이 평민인지 제사장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⁹⁶ 하지만 이 구절이 신명기 역사가의 정보이며 “누구든 제사장이 될 수 있었으나 레위인을 선호했다.”⁹⁷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런 맥락에서 이 레위인은 본래 제사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다.

4) 출 32장 26-29절은 유럽학자들이 포로기 이후의 편집으로 보는 것과⁹⁸ 달리 프리드만은 E, 즉 실로 출신의 레위인 제사장이 북 왕국 시절에 기록한 희망의 문서라고 설명한다.⁹⁹ 북쪽 전승으로 간주되는 E는 주전 7세기 유다 왕실이 작성한 신명기 전승(D)과 북쪽 전승이라는

2012), 79-80.

95 Ibid., 89.

96 S. Niditch, *Judges*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182. 그를 “행운을 가져다주는 떠돌이 성인(a wandering holy men)”이라고 표현한다.

97 W. C. Propp, *Exodus 19-40* (AB 2A; New York: Doubleday, 2006), 571.

98 참고. 전재영, “금송아지 이야기(출 32)에 반영된 레위 성전경비대의 이미지”, 『구약논단』 81집 (2021년 9월), 10-39.

99 Friedman, 「누가 성서를 기록했는가?」, 91-97.

공통점을 지닌다. 이 본문은 레위인이 제사장이 된 유래를 친족보다 야훼를 우선시하였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¹⁰⁰ 슈미트는 출애굽기 32장 29절과 신명기 33장 9절에 묘사된 행동 양상을 “레위인 규칙” 즉 충성서약으로 풀이했다.¹⁰¹ 그래서 두 본문의 사상적 유사성은 간과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본문이 비록 신명기 어휘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 산당과 제의를 폐지하는 요시야 개혁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이런 극단적 행위는 개혁에 대한 충성도를 강화하는 목적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 본문을 신명기 개혁 집단이 추가했을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는다.

5) 신명기는 레위 지파(10:8-9), 레위 사람 제사장(17:9, 18: 18:1; 24:8; 27:9; 31:9; 참고. 21:5), 레위인(12:12, 18; 14:27, 29; 16:11, 14; 18:6; 26:11, 12), 그리고 제사장(17:12; 18:3; 19:17; 20:2; 26:3, 4)을 함께 언급한다.¹⁰² 우리의 주장에 따라 “레위 지파”는 요시야가 처음 제정한 용어이다. “레위 사람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의 단일화를 추진하고 국토 수복을 도모하는 요시야의 개혁을 추진하고 지지하는 레위인 집단 — 힐기야와 사반 가문 — 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구제가 필요한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은 개혁에 절대적으로 협조가 필요하지만 지역 성소 폐지로 실직한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다.¹⁰³ “제

100 J. Baden, “Violent Origins of the Levites: Text and Tradition”, in *Levites and Priest in Biblical History and Tradition*, 112.

101 Schmitt, “Der Ursprung des Levitentums”, 575-598.

102 참고. R. D. Nelson, *Deuteronomy: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231-232; 강지숙, “신명기의 레위인과 예제키엘의 레위인”, 『신학전망』 161호 (2008), 2-24; 민경진, “신명기에서의 레위인”, 『장신논단』 44권 4호 (2012), 13-36.

103 왕하 23:9는 개혁에 반대하는 지방의 레위인을 묘사하는 구절로 이해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위해, S. L. Cook, “Those Stubborn Levites: Overcoming Levitical Disenfranchisement.” in *Levites and Priests*, 155-170.

사장”은 문맥상 “레위 사람 제사장”의 약칭으로 보인다.¹⁰⁴ 알베르츠는 레위인을 요시야가 나라 곳곳에 흩어져 있던 제사장 가문을 통일시킨 결과로 이해했으나 우리는 왕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레위 지파를 확정했을 것이라는 방식으로 그의 주장에 변화를 준다. 군네벡과 아켄바흐 등이 언급한 제사장의 레위인화(levitizierung)는 요시야의 레위 지파화(tribalization of the Levites)라고 말할 수 있다.

5. 나가는 말

고대 이스라엘의 레위인은 후기청동기 시대 저지대 도시국가 시절에서 철기시대 중앙 산지의 촌락사회였던 초기 이스라엘과 군주 시대 동안 팔레스타인 땅 곳곳의 성소에서 지역주민에게 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사장과 제의 보조원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로 상정된다. 그들은 처음부터 서로 혈연관계도 없으며 정치적 동맹을 만들지도 않았다. 그들은 전래하는 유명한 전승이 있는 이름있는 장소(헤브론, 길갈, 실로, 세겜, 벤훈, 단, 하솔, 므깃도 등등)에서는 대중의 호응에 힘입어 세력 있는 제사장 가문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들은 늘 그렇듯 정치와 공생할 수 밖에 없었고 정치인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 그들을 활용했다. 다윗은 레위인 가운데 무스계의 아비아달과 아론계 사독을 제사장으로 임명했다. 솔로몬은 아론계 사독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고 정치했으나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에게 분열의 빌미를 제공했다. 여로보암은 실로 출신의 예언자 아히야의 도움을 받고 건국했으나 산당 제사장의 직분을

104 참고, Nelson, *Deuteronomy*, 231 and n4. 신 26:3과 11은 레위 제사장과 레위인을 분명히 구별한다고 지적한다.

레위인에게 맡기지 않았다. 주전 722년 사마리아가 멸망한 이후 히스기야의 개혁은 앗수르의 침공으로 부분 성공에 그쳤고 요시야는 실로의 무스계 레위 제사장 힐기야를 앞세워 다시 개혁을 추진했다. 요시야는 이 개혁의 성공을 위해 온 땅의 레위인을 12지파 중 하나의 지파로 삼았다. 벨하우젠이 말하듯 지방 산당의 제사장들을 요시야 때 처음으로 레위인으로 부르게 된 것은 아니었다. 제의기능인으로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 상존했다. 요시야의 예기치 않은 죽음으로 레위인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 가문 중심의 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예언자로 부름 받은 사독 제사장 에스겔은 레위 사람 가운데 사독 제사장 가문을 복권하고 반대로 그 밖의 레위인(제사장)들에게는 성전의 잡무를 수행하는 하급 집단으로 강등시키는 성전 회복 프로그램을 남겼다(겔 43:10-16).¹⁰⁵ 유배에서 돌아온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기서는 제2 성전 건축과 예후드 사회의 개혁을 위해 레위인들의 도움과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레위인은 고대 이스라엘 곳곳에서 다양한 신을 섬기던 제의기능인들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치인들의 중용과 배척이 교차하는 삶을 살았다. 주전 7세기 말 요시야는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들에게 하나의 공식적인 지파 지위(신 10:8; 18:1)와 더불어 야훼 신앙의 수호자라는 위상을 부여하였다(출 32:26-29). 포로기 이후 레위인은 제의 보조원으로 강등되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역사의 핀볼(a pinball)이었다.

105 Propp, *Exodus 19-40*, 571. 레위인의 죄와 관련된 논의를 위해 참조. B. Kilchör, "The Meaning of Ezekiel 44,6-14 in Light of Ezekiel 1-39", *Biblica* 98 (2017), 191-207.

참고문헌

- 김영선, “서평: Mark Leuchter, *The Levites and the Boundaries of Israelite Ident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신학전망」 200호 (2018), 218-231.
- 강지숙, “신명기의 레위인과 에제키엘서의 레위인”, 「신학전망」 161호 (2008), 2-24.
- 민경진, “제사장 문서들 안의 레위인: 에스겔과 P문서를 중심으로”, 「부산장신논총」 4집 (2004), 1-26.
- _____, “에스라-느헤미야서 안의 레위인”, 「구약논단」 26집 (2007), 112-128.
- _____, “신명기에서의 레위인”, 「장신논단」 44권 4호 (2012), 13-36.
- _____, “하코하님 하르위임 번역 재고”, 「부산장신논총」 13집 (2013), 25-40.
- 배희숙, “역대기에 나타난 레위인의 기능 및 그 의미”, 「장신논단」 45권 4호 (2013), 67-89.
- 우택주, “레위인의 사회적 기원과 제사장 역할의 재평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8집 (2008), 27-47.
- _____, “초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복음과 실천」 46집 (2010), 9-34.
- _____, “고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제도는 언제 제정되었는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0집 (2013), 5-36.
- 전재영, “금송아지 이야기(출 32)에 반영된 레위 성전경비대의 이미지”, 「구약논단」 81집 (2021년 9월), 10-39.
- Abba, R., “Priest and Levites in Deuteronomy”, *VT* 27 (1977), 257-267.
- Achenbach, R., “Levitishe Priester und Leviten im Deuteronomium: Überlegungen zur sog. ‘Levitisierung des Priesterums’”, *ZABR* 5 (1999), 285-309.
- _____, “Levi/Leviten”,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Vol. 5 (2002), 293-295. Rev. ed. Hans Dieter Betz et al.
- Ackerman, S., “Household Religion, Family Religion, and Women’s Religion in Ancient Israel”, John Bodel and Saul M. Olyan(eds.), *Household and Family Religion Antiquity* (Oxford: Blackwell, 2008), 130-131.
- Ahituv, S. and E. D. Oren.(eds.), *The Origin of Early Israel – Current Debate: Biblical,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Perspectives* (Ben-Gurion University of the Negev Press, 1998).
- Ahlström, G. W., *Royal Administration and National Religion in Ancient Palestine* (Leiden: Brill, 1982).

- Albertz, R., 「이스라엘 종교사 I」(강성열 옮김), (고양: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3).
- Altmann, P., “What do the ‘Levites in your Gate’ have to do with the ‘Levitical Priests’? An Attempt at European-North American Dialogue on the Levites in the Deuteronomistic Law Corpus”, Mark A. Leuchter and Jeremy M. Hutton(eds.), *Levites and Priests in Biblical History and Tradition* (Atlanta: SBL, 2011), 135-154.
- Baden, J., “Violent Origins of the Levites: Text and Tradition”, M. A. Leuchter and J. M. Hutton(eds.), *Levites and Priests in Biblical History and Tradition* (Atlanta: SBL, 2011), 103-116.
- Clements, R. E., “Deuteronomy”,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II (Nashville: Abingdon, 1998), 269-552.
- Cody, A., *History of Old Testament Priesthood*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69).
- Cook, S. L., “Those Stubborn Levites: Overcoming Levitical Disenfranchisement”, M. A. Leuchter and J. M. Hutton(eds.), *Levites and Priests in Biblical History and Tradition* (Atlanta: SBL, 2011), 155-170.
- Coote, R. B., “The Emergence of Israel Again”, Jim West and James Crossley(eds.), *History, Politics and the Bible from the Iron Age to the Media Age: Essays in Honor of Keith W. Whitelam* (New York: Bloomsbury T&T Clark, 2017), 19-40.
- _____, “Joshua”, *The New Interpreter’s Bible, II* (Nashville: Abingdon, 1998).
- _____, 「신명기 역사」(우택주 옮김), (파주: 한울엠플러스, 2022).
- Coote, R. B. and D. R. Ord, 「성서의 처음 역사」(우택주 옮김), (파주: 한울엠플러스, 2017). 원제, *The Bible’s First History* (Philadelphia: Fortress, 1989).
- _____, *In the Beginning: Creation and the Priestly Histor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 Cross, F. M.,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 Dahmen, U., *Leviten und Priester im Deuteronomium* (Bodenheim: PHILO, 1996).
- Davies, P. R., *In Search of ‘Ancient Israel’*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 Dever, W. G., *Who Were the Early Israelites and Where Did They Come From?*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3).
- Emerton, J. A., “Priest and Levites in Deuteronomy”, *VT* 12 (1962), 129-38.
- Faust, A., *Israel’s Ethnogenesis: Settlement, Interaction, Expansion and Resistance* (London: Equinox, 2006).

- Finkelstein, I., *Forgotten Kingdom: The Archaeology and History of Northern Israel*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3).
- Finkelstein, I. and Benjamin Sass, “The West Semitic Alphabetic Inscriptions, Late Bronze II to Iron IIA: Archaeological Context, Distribution and Chronology”, *Hebrew Bible and Ancient Israel* 2.2 (2013), 149-220.
- Fleming, D. E., *The Legacy of Israel in Judah's Bibl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 Frank, F. M.,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 Frank, F. M. and D. N. Freedman, *Studies in Ancient Yahwistic Poetr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5).
- Friedman, R. E., 「누가 성서를 기록했는가?」 (이사야 율김), (서울: 한들출판사, 2008).
- Fritz, V., *The Emergence of Israel in the Twelfth and Eleventh Centuries B. C. E.* (Atlanta: SBL, 2011).
- Gunneweg, A. H. J., *Leviten und Priest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5).
- Hasel, M. G., “Israel in Merneptah Stela”, *BASOR* 296 (1994), 45-61.
- Hunt, A., *Missing Priests: The Zadokites in Tradition and History* (New York: T&T Clark, 2006).
- Hutton, J. M., “The Levitical Diaspora (I): A Sociological Comparison with Morocco's Ahansal”, J. David Schloen(ed.), *Exploring the Longue Durée: Essays in Honor of Lawrence E. Stager* (Winona Lake: Eisenbrauns, 2009), 223-234.
- _____, *Transjordanian Palimpsest: The Overwritten Texts of Personal Exile and Transformation 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Berlin: De Gruyter, 2009).
- Jamieson-Drake, D. W., *Scribes and Schools in Monarchic Judah: A Socio-archaeological Approach*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1).
- Jeon, Jaeyoung, “Levites”, *Encyclopedia of the Bible and Its Reception*, Vol. 16 (Berlin/Boston: Walter de Gruyter, 2018), 336-346.
- Kilchör, B., “The Meaning of Ezekiel 44,6-14 in Light of Ezekiel 1-39”, *Biblica* 98 (2017), 191-207.
- _____, “Priester und Leviten im Alten Testament. Eine kritische Diskussion zweiter neuer Monografien”, *ZABR* 22 (2016), 269-282.
- Kugler, R., “Priests and Levites”, *The New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4

- (Nashville: Abingdon, 2009), 596-613.
- Lemaire, A., “The Spread of Alphabetic Scripts (c. 1700-500 BCE)”, *Diogene* 55.2 (2008), 45-58.
- Lenski, G., *Power and Privilege: A Theory of Social Stratification* (New York: McGraw-Hill, 1966).
- Lenksi, G., P. Nolan, and J. Lenski, *Human Societies: An Introduction to Macrosociology*, 7th ed. (New York: McGraw-Hills, 1995).
- Levin, C., “Das System der Zwölf Stämme Israels”, J. A. Emerton(ed.), *Congress Volume, Paris*, VTS 61 (Leiden: Brill, 1995), 163-178.
- Leuchter, M. A., “‘The Levite in Your Gates’: The Deuteronomic Redefinition of Levitical Authority Author(s)”, *JBL* 126 (2007), 417-436.
- _____, *The Levites and the Boundaries of Israelite Ident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 Longman III, T. and R. B. Dillard, 「최신구약개론」 2판 (박철현 옮김), (고양: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9).
- Mazar, A., *Archaeology of the Land of the Bible: 1000-586 BCE* (New York: Doubleday, 1990).
- McCarter, P. K. et al., “An Abecedary of the Mid-Tenth Century B.C.E. from the Judean Shephelah”, *BASOR* 344 (November 2006), 5-46.
- McDonald, N., *Priestly Rule: Polemic and Biblical Interpretation in Ezekiel 44* (Berlin/Boston, 2015).
- Miller, R. D., *Chieftains of the Highland Clans: A History of Israel in the 12th and 11th Centuries B.C.* (Grand Rapids: Eerdmans, 2005).
- Moran, W. L., *The Amarna Letter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2).
- Na’aman, N., “Sojourners and Levites in the Kingdom of Judah in the Seventh Century”, *ZABR* 14 (2008), 237-279.
- Nakhai, B. A., *Archaeology and the Religions of Canaan and Israel* (Boston: ASOR, 2001).
- _____, “The Household as Sacred Space”, R. Albertz, B. A. Nakhai, S. Olyan and R. Schmitt(eds.), *Family and Household Religion: Toward a Synthesis of Old Testament Studies, Archaeology, Epigraphy, and Cultural Studies* (Winona Lake: Eisenberaus, 2014), 53-62.
- Nelson, R. D., *Deuteronomy: A Commentar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 Niditch, S., *Judges*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 Nurmela, R., *The Levites: Their Emergence as a Second-Class Priesthood* (Atlanta: Scholars Press, 1998).
- Olyan, S., "Zadok's Origins and the Tribal Politics of David", *JBL* 101 (1982), 177-193.
- Pfloh, E., *The Emergence of Israel in Ancient Palestine: Historical and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London: Equiknox, 2009).
- Propp, W. C., *Exodus 19-40*, AB 2A (New York: Doubleday, 2006).
- Rehm, M. D., "Levites and Priests", *The Anchor Bible Dictionary, IV* (New York: Doubleday, 1992).
- Richelle, M., "Elusive Scrolls: Could Any Hebrew Literature Have Been Written Prior to the Eighth Century BCE?", *VT* 66 (2016), 556-594.
- Rollston, C. A., *Writing and Literacy in the World of Ancient Israel: Epigraphic Evidence from the Iron Age* (Houston: SBL, 2010).
- Römer, T., *The Invention of God*, Raymond Geuss(tra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 _____, "The Rise and Fall of Josiah", O. Lipschits, Y. Gadot, and M. J. Adams(eds.), *Rethinking Israel: Studies in the History and Archaeology of Ancient Israel in Honor of Israel Finkelstein* (Winona Lake: Eisenbrauns, 2017), 329-339.
- Samuel, H., *Von Priestern zum Patriarchen. Levi und die Leviten im Alten Testament*, Beihefte zur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448 (Berlin: de Gruyter, 2014).
- Sanders, S. L., *The Invention of Hebrew*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9).
- Schaper, J., *Priester und Leviten im archämenidischen Juda: Studies zur Kult- und Sozialgeschichte Israels in persischer Zeit*, Forschungen zum Alten Testament 31 (Tübingen: Mohr Siebeck, 2000).
- Schniedewind, W. M., *A Social History of Hebrew: Its Origins through the Rabbinic Period*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3).
- Schmitt, G., "Die Ursprung des Levitentums", *ZAW* 94 (1982), 575-599.
- Smith, M. S., *The Origins of Biblical Monotheism: Israel's Polytheistic Background and the Ugaritic Tex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_____, *The Early History of God: Yahweh and Other Deities in Ancient Israel*,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2002).
- Stager, L. E., "The Family in Ancient Israel", *BASOR* 260 (1985), 1-35.

- Tapy, R. E. and P. Kyle MaCater(eds.), *Literate Culture and Tenth-Century Canaan: The Tel Zayit Abecedary in Context* (Winona Lake: Eisenbrauns, 2008).
- Toorn, K. van der, *Family Religion in Babylonia, Syria and Israel: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Forms of Religious Life* (Leiden: E. J. Brill, 1996).
- Wellhausen, J.,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Israel: with a Reprint of the Article Israel from the Encyclopaedia Britannica* (New York: Meridian Books, 1961).
- Westermann, C., *Genesis 12-36: A Commentary* (Minneapolis: Augsburg, 1985).

검색어

레위인, 레위 지파, 요시아, 요시아 개혁

[ABSTRACT]

Who were the Levites in Ancient Israel?

Taek-Joo Woo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Seminary

Since the work of Wellhausen, scholarly inquiries into the origins of the Levites in Ancient Israel have, to a large extent, sidestepped the issue of Levite tribalization. This oversight can be attributed to the prevailing assumption that the Levites and the tribe of Levi were interchangeable concepts. Although a majority of scholars, with a few exceptions among European researchers, have concurred that Josiah's reform significantly heightened the role of the Levites, this essay presents a distinct perspective while remaining in agreement.

At the core of this essay lies the proposition that the Levites functioned as cultic functionaries — comprising both priests and aides — since the earliest epochs of Ancient Israel's history. This assertion draws support from three indirect lines of evidence. First, the consistent utilization of cultic facilities from Late Bronze Age city-states within Iron Age sites implies an enduring tradition of worship. Second, the intertwined veneration of El and Yahweh suggests the participation of discrete priestly groups at diverse sacred locations during the monarchy. Third, the presence of abecedaries serves as a testament to scribal activities spanning from the Late Bronze Age to Iron I.

R. B. Coote underscores the intricate connection between the concept of a tribe and the existence of a state. Any tribe's nomenclature

www.kci.go.kr

and activities would invariably find documentation within a state framework. Consequently, without the presence of a state, the notion of a tribe would remain elusive.

In light of these considerations, this essay postulates that the opportune moment to formally establish the tribe of Levi — despite its historical service as cultic functionaries — was during Josiah's transformative reform in 622 BCE. The triumph of this reform pivoted on the active collaboration and involvement of the Levites within local sanctuaries. Thus, the implementation of this reform emerges as a pivotal juncture, embodying the seminal inception of the tribe of Levi within the annals of ancient Israel's rich history.

key words

the Levites, Tribe of Levi, Josiah, Josianic Reform

투고일: 2023년 06월 19일

심사일: 2023년 07월 24일

게재 확정일: 2023년 08월 09일

www.kci.go.kr